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이영애

'현모양처'로만 알고 있나요? 사랑과 예술 꽃피운 여성이에요

TV 드라마 '사임당' 방영 앞두고
학계, 신사임당 재해석 열풍
학술서적·소설·동화 잇따라 출판

조선은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 여성의 활동은 제한되었고 이름 대신 성씨나 누구의 여씨(女息)로 불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나이가 차면 부모의 결정에 따라 얼굴도 모르는 이와 혼인을 해야 했다.

교육 받을 기회도 차단돼 있어 언문(한글)이나 깨치는 수준이었다.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도 자신의 삶과 예술을 지향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남다른 인생을 산 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신사임당(1504~1551)과 허난설헌이다.

오는 26일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의 방영을 앞두고 서점가에는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책들이 잇따라 발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학술 서적부터 소설, 위인전, 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사임당을 소재로 한 책들이 쏟아지는 추세다.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사임당 서적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드라마 '사임당'은 그녀의 삶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전제화가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을 그렸다. 대장금 이후 13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이영애가 주연 배우를 맡아 세간의 관심이 높다.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 강사와 신사임당의 1인 2역을 맡은 이영애는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의 일기와 의문의 미인도에 얽힌 비밀을 풀어 나가는 과정을 다채로운 연기로 그려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사임당에 대한 평가는 '조선 제일의 여류 화가', '울곡 이이의 어머니'와 같은 정형화된 수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류 보편 주제인 '사랑'과 '예술'을 토대로 드라마화한 모습은 고정화



된 캐릭터와는 다른 느낌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작금의 신사임당 열풍은 문학계와 학계로부터 비롯됐다. '소설 사임당'(손승휘), '신사임당'(김학민), '사임당의 비밀 편지'(신아연) 등 사임당을 내세운 역사와 장르소설이 줄을 이었다.

최근에는 '은비령'의 작가 이순원이 신사임당의 생애를 문헌에 근거해 복원한 소설 '사임당'을 펴냈다. 특유의 서정적 문체와 역사적 사료를 매개로 되살려낸 사임당은 환상과 허구를 견어낸 실존 인물로 그려진다. 작가는 "아홉 살 때 처음 오죽헌에 소풍을 가서 사임당을 만났던 소년에게 반백의 머리로 사임당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 권이제가 '붉은 비단보'를 발간한 바 있다. 사랑과 예술이라는 키워드를 모티브로 소설을 펴내고자 했지만 '시기 상조'라는 지적에 사임당의 이름을 뺐다. 당시는 사임당이 오만원권 화폐 인물로 선정되며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난해 권 작가는 개정판 '신사임당의 붉은 비단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며 신사임당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권 작가는 개정판에서 "그녀의 이름도 되찾아주게 되었다. 사임당, 온기와 슬픔과 눈물을 가진, 우상이 아닌 한 인간을 나는 호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신사임당에 대한 재해석 바람은 거세다.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임당전'에서 그를 "결혼생활의 성공과

자실현을 모두 이룬 여성"으로 평가했다. 단순히 현모양처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립한 인물로 본 것이다.

사상사·여성사·미술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신사임당, 그녀를 위한 변명'은 신사임당에 대한 인식이 시대와 필요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주목한다. 책은 신사임당의 이미지 변천사를 시대와 연계해 풀어낸다.

어린이를 위한 책들도 계속해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출간됐거나 예정인 아동도서만 벌써 9권에 이를 만큼 신사임당은 문학출판계의 '핫 이슈'다. '궁금해요, 신사임당'(폴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빛 사임당'(사파리), '어린이를 위한 신사임당 이야기'(채은어린이) 등 연령대별 어린이 독자를 상대로 한 서적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신사임당은 원래 위인전의 단골 인물이었지만 지금의 출판에서는 예술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 주인공으로 바뀌고 있다. 1980~1990년대 위인전 속 신사임당은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이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예술 재능을 꽃피운 여성' 등으로 묘사된다.

이성자 동화작가는 "신사임당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인문학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 인문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인물을 바라보면 다양한 조명이 가능하다"면서 "문화예술계와 학계에 부는 페미니즘의 재해석 영향도 큰 것 같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맛있는 전통음식 요리 배워보세요"

전통문화관 남성 수강생 모집
매생이국 등 14가지 요리

중년 남성들이 앞치마를 둘렀다. 조물조물 나물을 무치고, 맛있는 찜개도 만든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이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한 '액티브 시니어 전통음식 특별 강좌'는 일찌감치 마감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새로 취미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는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들을 위해 기획했다. 2월부터 진행되는 10기 강좌에서는 남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영양성분

함량이 높은 제철음식인 매생이국, 우엉영양밥, 순두부 버섯들깨탕, 녹두전, 불동결절이 등 14가지 음식들을 배운다. 강좌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전통문화관 남도의레음식체험실에서 8주간 진행된다. 강좌는 광주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레음식장 최영자 명인이자. 오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방문 및 전화접수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7만원, 재료비는 별도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150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명난 국악교실 참여해보세요"

'임방울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판소리·무용 등 6개 분야

'올해는 신명난 국악교실에 참여해보세요.' 광주가 낳은 국악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2017년도 '임방울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판소리, 무용 등 모두 6개 분야를 배울 수 있으며 강좌는 임방울국악제 등 국악경연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등으로 짜여져 있다. 모집 분야는 전남대 전인삼(전수대

사실 명창대회 대통령상) 교수가 강사로 나서는 판소리를 비롯해 민요(김찬미·제13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장고(정인성·제12회 보성소리축제 명고부 대상), 무용(김덕숙·장흥가무악경연대회 대통령상), 고법(임영일·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다문화반(진은경·은빛무용단 단원) 등이다. 강좌는 오는 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 1회 2시간씩 진행되며 수강료는 월 1만원이다. 각 분야별로 선착순 20명씩 모집한다. 문의 062-521-073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비, 젊은 감각의 문예지 '문학3' 창간

출판사 창비가 젊은 감각의 문예지 '문학3'(사진)을 창간했다. '문학3'은 종이잡지 이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학웹'(www.munhak3.com), 현장 행사 중심의 '문학 토크'로 구성되는 문학 플랫폼이다. 또한 '문학3'이라는 명칭에는 앞서 세 형태의 플랫폼과 '삶'의 현장을 담아낸다는 뜻도 담았다.

종이잡지는 매년 1·5·9월 세 차례 발행된다. 문학웹은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키워드3'와 팟캐스트 '중개방송' 그리고 작가들이 작품을 연재하는 '3x100'(원고지 300매 분량) 등으로 구성됐다. 문학웹에서도 종이잡지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문학3은 기존 문예지에서는 작가와 독



문학경향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은 문예지 창간을 공언했다. 2015년 신경숙

자, 작품이 각자 역할에 갇혀 소외됐고 문학이 삶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창비는 지난해 계간 '창작과비평'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작가 표절 사태로 불거진 '문단 권력' 비판에 대한 자성기도 하다. 한편 종이잡지 창간호에는 김미정·양경언·신용욱 기획위원이 공공성·현장성·실험성 등 문학의 방향을 주제로 한 편식 글을 썼다. 소설가 김사과와 근현대문학·미학 연구자인 신지영·양효실이 장애인·성폭력 등 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한 에세이도 수록됐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스카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리얼타임로그인서 만나실거예요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서도록 되고
먼지 들어가지 않는 신희 동량상 한지

실제 시공 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러 잔 멘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단열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 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도) 대신프리모 13세

대산프리모가발